

30년 '키다리 아저씨'... 모교 후배들 '등불'

박희서 목포합동석유상사 대표
매년 100만원씩 서산초에 기부
지역 인재 양성·사회 공헌 앞장



돕는 데 쓰였으나, 기부자의 정체는 오랫동안 베일에 싸여 있었다.

3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모교에 장학금을 전달해 온 지역 사업가의 선행이 뒤늦게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24일 목포서산초등학교 등에 따르면 목포합동석유상사를 운영하는 박희서(71·사진) 대표는 지난 30년간 매년 100만원씩, 총 3천만원의 장학금을 익명으로 학교에 기부했다.

이 장학금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을

박 대표의 소중한 선행은 최근 국립목포대학교에서 열린 명예경영학박사 학위 수여식에 서산초 채정화 교장을 초청하면서 자연스럽게 알려졌다.

해당 기부 사실은 명예박사 학위 공적조서에도 포함되지 않았을 만큼 철저히 익명으로 유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목포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취득한 박 대표는 30여년간 상사를 이끌며 서남권 해양에너지 공급망 구축에 헌신해 왔다.

목포와 제주, 신안 등을 오가는 여객선을 비롯해 해경 경비정, 항로표지관리선 등에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지역 해운·항만 산업 발전을 든든하게 뒷받쳤다.

또한 한국해운조합 해운인재 양성 지원사업

에 1천만원을 기탁한 것을 비롯해 목포장학재단 장학금 출연,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5천만원 기탁, 대학 발전기금 3천만원 출연 등 지역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 밖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의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경영 성과와 사회공헌 활동을 높이 평가받아 국립목포대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품에 안았다.

손창식 서산초 총동문회장은 "학위 수여 과정을 통해 그동안 이어온 조용한 선행을 비로소 알게 됐다"며 "오랜 세월 묵묵히 후배들의 '키다리 아저씨'로, 또 '등불'로 앞길을 밝혀준 데 대해 모든 동문들과 함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광주교통공사,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광주교통공사가 지역 내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임직원들의 전문 기술을 활용한 '재능나눔 주거환경 개선 봉사'를 펼쳤다. 24일 광주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동구 소재동의 한 독거노인 세대를 방문해 노후 시설물을 보수하고 생활환경을 정비하는 봉사활동을 했다.

이번 활동에는 공사 임직원 10여명을 비롯해 김용임 광주시의원, 자원2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함께했다.

광주교통공사 직원들은 전문성을 살려 화재 위험이 있는 노후 등기기와 콘센트, 스위치 등 전기시설을 전면 교체했다. 또 도배와 장판을 새로 시공하고, 실내의 정리와 대청소를 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구슬땀을 흘렸다.

문석환 광주교통공사 사장은 "직원들의 재능이 모여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수희기자



광주 북부경찰, 기초질서 합동 캠페인

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경찰서 앞 사거리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자율방범대 등과 함께 기초질서 지키기 민·경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 지안 강화와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 마련됐으며, 경찰 등은 기초질서 확립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양백승 북부경찰서장은 "기초질서가 확립돼야 시민들의 안전이 확보된다"며 "지속적인 캠페인과 계도 활동을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 확산과 신뢰받는 경찰상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찬용기자



보성경찰, '외국인 범죄예방교실' 개최

보성경찰서는 지난 23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베트남 계절근로자 6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외국인 범죄예방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범죄예방교실은 최근 외국인 고용 현장에서 폭행·임금 착취 등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생활 속 범죄 예방과 대응 요령을 안내하기 위해 보성군과 협의해 마련했다.

경찰은 '안전전남 앱 설치' 등 외국인이 알아야 할 내용을 설명했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업체에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원수 경찰서장은 "외국인 범죄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 지역 주민과 외국인이 체감하는 안전한 보성이 되도록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기자

결혼

▲이중주(전남매일 주필)·이지영씨 아들 준영군, 양상원·김점숙씨 딸 현경양=24일(일) 오후 3시 토브헤세드(서울 강남구 논현동 72-8).

부음

▲김건홍씨 별세, 김순희(광주 남구 아동청소년과장)씨 부친상=발인 25일(수) 오전 7시 30분 광주 천지장례식장 20호(062-527-1000).



광주도시공사, 해상 안전사고 예방 교육

광주도시공사는 "최근 무안군 소재 해상안전체험관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상 안전사고 예방 교육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긴급상황 및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우리의 안전, 함께 배우고 함께 지키는'을 주제로 선박 침몰 상황을 가정해 ▲탈출 체험 ▲구명조끼 착용 및 비상 탈출 슬라이드

실습 ▲실제 선박용 구명뗏목 체험 ▲이안류 입수 교육 ▲심폐소생술 ▲수상레져 VR체험 등이 진행됐다.

김승남 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해상안전체험교육으로 직원들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자신감을 동시에 키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전직원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수희기자



순천왕조초, '모두가 행복한 학교' 캠페인

순천왕조초등학교는 지난 23일 학교 정문에서 학생회와 학부모회, 순천시 상담복지센터, 교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위한 등교맞이 캠페인'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학교폭력 예방과 인성교육 메시지가 담긴 피켓을 들고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밝은 인사와 함께 떡을 나누며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날 행사에는 순천시와 순천시교육지원청, 순천시의회, 순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이 함께했다. /순천=양홍렬기자

순천왕조초는 행사를 계기로 소통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박진영 교장은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합심해 배려가 넘치고 안전한 으뜸 교육환경을 굳건히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순천=양홍렬기자

전남도, 여수 묘도산단 주변서 편백나무 식재

전남도는 24일 여수 묘도산단단지 주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일원에서 제8회 식목일을 기념하고 건강한 숲 복원을 위한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 정현구 여수시장 권한대행, 임업단체, 여수시 시민단체 연합회, 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편백나무 묘목 7천500그루를 심으며 탄소흡수원 확충과 범국민 나무심기 실천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또한 2ha 면적에 조성되는 편백숲이 전국을 대표하는 아름답고 거대한 명품숲으로 탄생하길 염원했다.

전남도는 이날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사)숲속의 전남과 공동으로 '내나무가' 캠페인 일환의 매실나무, 자두나무, 석류나무



무 등 유실수 1천500그루를 나눠주는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전남도는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오는 200년까지 5억그루 나무심기를 목표로 지난해까지 1억3천만여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림과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건강한 산림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양시원기자



광주국세청-광주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 협약

광주지방국세청은 24일 광주시와 생계가 어려운 국세 체납자에 대한 복지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최근 출범한 광주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실제 확인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운 국세 체납자를 확인해 자치구와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하면 해당 자치구 등은 필요한 복지 혜택을 검토해 지원할 예정이다.

고광안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복지위기 대상을 조기에 발굴하고, 시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고의적 납부 기피자는 엄정한 추적조사 등을 통해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지만, 생계 곤란형 체납자는 복지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광주시와 협조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성기자



신안 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 '정기총회' 성료

신안군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은 "최근 신안군민체육관에서 조합원과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신안군의 핵심 시책인 '1도 1루 지원' 및 '세계질 꽃피는 섬' 조성 사업에 발맞춰 정원수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본회의에서는 지난해 결산 보고와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가 원안 가결

됐다. 조합 측은 올해 조합원의 소득 증대와 권익 보호를 위해 정원수 구매 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고품질 묘목 생산을 위한 전문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박영철 이사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며, 정원수 산업을 신안의 든든한 미래 먹거리로 키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안=양훈기자

전남도, 지방도 정비 청렴·안전 결의대회

전남도는 24일 '2026년 청렴·안전 결의대회 및 공정보고회'를 열어 지방도 정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청렴·안전 관리 강화를 다짐했다.

결의대회에선 건설사업관리단과 시공사가 청렴 실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서를 하고 참석자 전원이 청렴·안전 서약서 작성에 공동으로 참여했다.

서약서에는 공정한 권한 행사,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익의 추구 금지, 이권 개입·알선·청탁 금지, 업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등 일체의 부당한 수수금지 등 청렴 의무가 담겼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준수, 현장 위험요소 사전 점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품질관리 기준 준수, 품질 문제 발생 시 책임있는 조치 이행 등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한 실천사항도 명시됐다.

최연호 전남도 도로정책과장은 "지방도 사업은 도민의 안전과 일상에 직결되는 기반시설인 만큼 공정 관리와 청렴·안전·품질 관리를 철저히 추진하겠다"며 "안전하고 투명한 건설현장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재정기자